

뉴스&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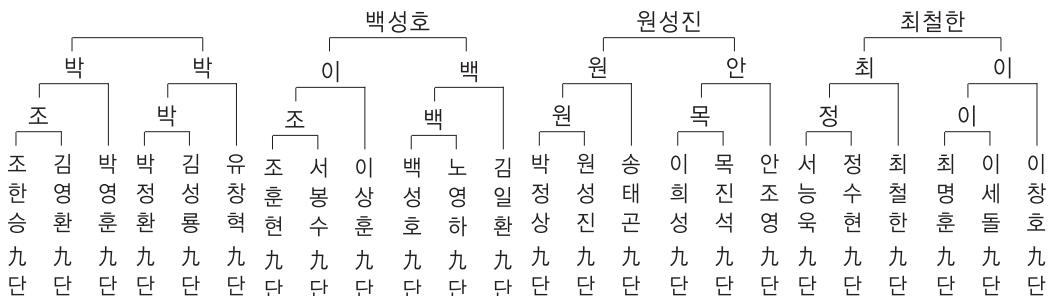
※ 2011년 1월 15일 기준

마지막 남은 4강 티켓의 주인은?

제13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4강의 주인공이 3명 결정됐다. 4강 티켓을 거머쥔 기사는 최철한 九단과 원성진 九단, 백성호 九단. 이 중 최철한 九단이 지난 1월 12일 벌어진 16강전에서 랭킹 1위 이세돌 九단을 불계로 꺾고 가장 먼저 4강에 오른 데 이어 1월 18일 원성진 九단과 백성호 九단이 각각 안조영 九단과 이상훈 九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나머지 4강 티켓 한 장은 박영훈 九단과 박정환 九단의 승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이번 기에는 이창호 九단, 이세돌 九단 등 강호들도 도중 탈락한 가운데 56년 생인 백성호 九단이 4강까지 진출하는 투훈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제한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며 우승상금은 2500만원이다.



전통의 후지쯔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2009년 도요타덴소배의 중단에 이어 일본이 유일하게 개최해오던 후지쯔배가 24회 대회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1년 12월 19일 일본기원이 한국기원에 공문을 보내 후지쯔배 중단을 정식 통보함으로써 일본 주최 세계대회가 모두 사라졌다.

후지쯔배는 1993년 6회 대회에서 유창혁이 한국기사로는 처음으로 우승의 코를 뚫은 후에 2007년 20회 대회까지 한국이 단 2번밖에 우승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한국과 인연이 깊었던 대회이다.

마지막 대회가 된 2011년 24회 대회에서는 박정환 九단이 중국의 치우진 八단을 꺾고 우승, 후지쯔배의 대미를 장식한 기사가 됐다.



News & Score Board



원익배 본선 16강 세팅 완료

제7기 원익배 십단(十段)전 본선 56강의 16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진 가운데 8강의 두 얼굴도 드러났다.

이번 원익배 본선은 박영훈 九단, 조한승 九단, 이영구 九단 등 타이틀 보유자 및 상위 랭커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본선 16강에는 1월 랭킹 상위 10걸 중 4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이변이 많았다.

한편 1월 16일 치러진 본선 16강전 첫 대국에서 최철한 九단이 박진술 五단을 꺾고 8강 티켓을 획득한 데 이어, 이튿날

인 17일 벌어진 본선 16강전 2국에

서는 흥기표 四단이 전기 우승자 자격으로 본선 16강에 직행한 이세돌 九단을 불계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홍	이	김	진	박	강	이	목	박	한	박	최	나	김	김	강
흥	홍	정	시	강	동	원	진	정	종	진	철	세	기	기	유
기	기	현	시	동	윤	석	진	환	진	술	한	동	원	원	택
돌	표	영	연	윤	윤	영	석	환	진	五	九	初	三	三	四
四	三	四	四	三	九	二	九	九	八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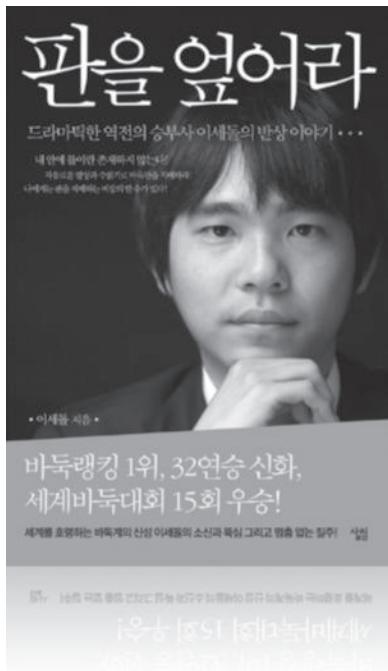
노영하 九단, 중국 허쩌시 방문해 한국 바둑 알려

2012년 1월 4일 노영하 九단이 중국 허쩌시(荷澤市) 무역촉진위원회와 허쩌시 체육국의 초청을 받아 허쩌시를 방문해 무단기원(牡丹棋院)의 선수와 대국을 했다. 허쩌시는 중국의 타 도시에 비해 바둑이 낙후돼 있어 최고수가 아마추어 2~3단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영재를 양성해 프로기사를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영하 九단은 한국바둑계와 허쩌시 교류의 첫 번째 인물로, 방문기간 동안 허쩌시 아마추어 기사와 교류하고 허쩌시와 한국 간의 바둑 문화 교류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도 노영하 九단은 무단기원 학생들의 기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줄 예정이다.



韓國九段圍棋高手盧永夏訪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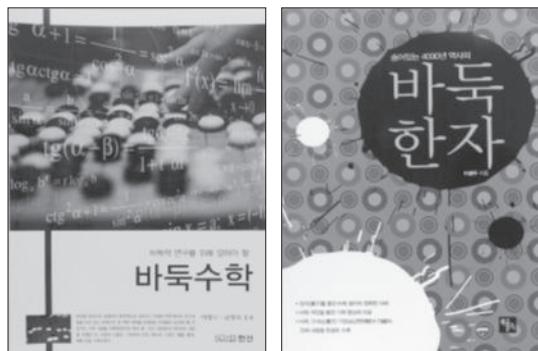


이세돌 신간 '판을 엎어라' 출간

이세돌 九단이 자신의 명국을 해설한 '이세돌 명국선'에 이어 자서전 '판을 엎어라'를 출간했다. 책의 제목인 '판을 엎어라'는 지금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수없이 뒤집고 바둑판을 지배한 이세돌식 바둑을 말하는 함축적인 문장이다.

이 책은 드라마틱한 승부를 연출하는 승부사로서의 삶, 인간 이세돌의 인생관과 가치관,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 등을 담음으로써 기성세대와 젊은 팬층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에 대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 승리에 심취해 자만심에 빠졌을 때의 아쉬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고뇌와 슬럼프 극복 과정,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내와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인 구리와의 10번기에 대한 단상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바둑 이외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있으며, 선배 기사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담고 있다.



'바둑한자', '바둑수학' 출간

바둑과 한자, 바둑과 수학을 접목한 「바둑한자」와 「바둑수학」이 출간됐다. 「바둑한자」는 바둑 용어에 쓰이는 한자의 숙지를 통해 바둑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돋고 바둑 격언을 통해 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대불대 레저·체육학부 바둑학 전공 이병두 교수가 저술했다. 책 말미에는 바둑 고서(古書)인 기경십삼편(棋經十三編)의 전체 내용을 한글로 수록했다.

또한 이병두 교수는 금영욱 성결대 컴퓨터공학부 부교수와 함께 바둑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승화시키고 여타 학문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바둑수학」을 출간했다. 바둑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수학 내용 및 중·고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수열 및 그래프, 함수, 행렬, 통계, 확률 등을 수록했다.



제31기 양상국 바둑특강

- 전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바둑과(初志會) -

일시 : 2012년 3월 6일~6월 19일(16주-매주 화요일)

실전대국 : PM 4시~6시 30분 강의:PM 6시 30분~8시

장소 : 서초구 양재동 1~7 양재 종합시장 빌딩 301호(3호선 양재역 5번 출구 도보 5분)

수강료 : 50만원, 선착순 15명 모집 문의전화 : 011-9933-8899

서울시의 “제27회 의사명인전 회원친선 바둑대회 성료”



2011년 12월 18일 서초동 한일바둑에서 40여명의 바둑 동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가 주최한 제27회 의사명인전 회원친선 바둑대회가 개최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치서 국장의 사회 아래 한철균 지도사범의 인사 및 한부현 원장의 경기규칙 설명과 함께 시작한 이날 대회는 A·B 두개조로 나뉘어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서는 입상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특별히 ‘행운상’을 마련해 각조 8등과 12등 회원에게 시상했으며, 명지대 바둑학과 지

도조교와의 지도바둑을 실시해 참
가 회원 모두 대회 폐회식까지 함
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입상자 명단

	우승	준우승	3위	행운상
A조(2급 이상)	윤동환	이동협	조현호	문언·한부현
B조(3급 이하)	김세강	이종기	지신중	최형기·황주섭

제6회 어르신 바둑·장기대회

2011년 12월 16일 양평군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제6회 어르신 바둑·장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양평군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대회는 각각 바둑부문과 장기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양평군 명예군민인 한철균 七단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회는 바둑과 장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 유지를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개최됐다.



■입상자 명단

	우승(군수상)	준우승	3위	장려상	장수상
바둑	김원한	백상기	김문수	이상우	정동주
장기	홍준상	이인규	김일기	김원우	이동두